

인도차이나 3 국 및 미얀마 動向

7월 23일 미얀마와 라오스가 ASEAN에 정식 가입함으로써
東南亞 10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아시아 실현이 한층 가까워졌다.
內戰이 발발한 캄보디아는 ASEAN 가입이 보류된 가운데
혼센 제2총리측이 政局을 주도하고 있다.
미얀마에서는 최근 달러貨에 대한 차트貨의 市場價値가 폭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라오스, ASEAN 加入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外務長官會議에서 기존 7개국 外무 장관이 미얀마와 라오스의 가입선언문에 서명함으로써 미얀마와 라오스는 ASEAN의 公式會員國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또한 新規加入國인 미얀마와 라오스는 “AFTA 창설을 위한 共同有效特惠關稅(CEPT) 計劃에 관한 協약[Agreement on 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CEPT) Scheme for the ASEAN Free Trade Area(AFTA)]”과 “ASEAN 關稅協定(ASEAN Agreement on Customs)” 비롯한 11개 주요 ASEAN 協약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미얀마와 라오스는 1998년 1월 1일부터 CEPT 계획에 따른 역내관세 인하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10년에 걸쳐 역내관세를 5% 이내로 인하할 예정이며, ASEAN 가입과 동시에 CEPT 대상품목을 ASEAN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표 1〉 ASEAN의 主要指標(1995년)

	태 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합 계
인구(백만명)	58.2	20.1	193.3	3.0	68.6	0.3*	73.5	4.9	44.0	465.9
GDP(억달러)	1,670	853	1,981	837	742	40*	204	18	102	6,447

주 : 1) 브루나이 93년 자료, 2) 미얀마자료는 추정자료.

자료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7, 1997. 5.

지난 1967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및 싱가포르 등 5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출발하였던 ASEAN은 1984년 브루나이, 그리고 1995년 베트남을 新規會員國으로 받아들였었고, 이번에 두 나라를 추가로 받아들임으로써 1967년 기구창설 이래 오랜 염원이었던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東南아시아(One Southeast Asia)” 실현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은 총인구 4억 6,590만명, GDP 6,447억 달러 규모의 經濟 및 安保協力體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번 ASEAN의 회원국 확대는 금년초 미얀마의 가입을 둘러싼 역외국과의 갈등 및 최근의 캄보디아 사태에 따른 회원국간 이견 표출 등 술한 어려운 과정을 거친 결과였다. 금년 상반기 중 ASEAN확대 관련 최대 이슈는 軍部獨裁와 人權彈壓을 이유로 미얀마의 ASEAN가입을 저지시키려는 美國을 위시한

西方國들과 이를 무시하려는 ASEAN간의 갈등이었다. 그러나 ASEAN은 지난 5월 31일 特別外務長官會議에서 이번에 가입한 미얀마와 라오스뿐 아니라 캄보디아까지 포함한 3개국을 7월까지 新規會員國으로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ASEAN이 결국 미얀마를 가입시키기로 결정함으로써 서방국들, 특히 美國과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왔다. 반면, 캄보디아에서는 7월초 훈 센(Hun Sen) 제2총리가 무력 쿠데타를 감행하고 ASEAN의 중재를 거부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ASEAN은 마지막 순간 캄보디아를 新規會員國에서 제외하였다.

올부라이트(Madeleine Albright) 美國務長官은 미얀마의 ASEAN 가입에 “ASEAN은 보다 큰 책임을 지게 되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캄보디아의 내전발발로 인한 정정불안, 동남아 주요통화의 환율불안정이 심화됨에 따라 ASEAN은 대내외적으로 당분

〈표 2〉 ASEAN의 推移

1967년 8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주축으로 ASEAN 출범
76년 2월	인도네시아에서 제1회 정상회담 개최; 발리선언 채택
84년 1월	브루나이 가입
92년 1월	제4회 정상회담 개최; ASEAN자유무역지대(AFTA) 구상 합의
94년 7월	ASEAN지역포럼(ARF) 제1회 회의 개최
95년 7월	베트남 정식 가입
95년 12월	최초의 동남아 10개국 정상회담 개최; ASEAN 10체제 실현합의
96년 3월	제1회 아시아·EU 정상회담(ASEM) 개최
96년 11월	ASEAN 10 비공식 정상회담 개최; 미얀마와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동시가입 방침 확인
97년 3월	동남아시아 비핵지대조약 발효
97년 5월	특별외무장관회의에서 미얀마와 캄보디아 및 라오스의 7월 가입 결정
97년 7월	캄보디아, 훈센 제2 총리에 의한 사실상 쿠데타 발생(5일) 긴급외무장관회담에서 캄보디아의 가입시기 연기결정(10일) 미얀마와 라오스의 가입(23일)

간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원국 확대를 통해 ASEAN은 최근 주춤하고 있는 經濟의 力動性을 되살리고 中國 등 주변강대국들을 유효하게 제어함과 아울러 국제무대에서 發言力 提高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의 양질의 저임노동력을 이용하여 輸出競爭力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대된 역내시장을 바탕으로 투자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그간 ASEAN 경제성장의 주요 동인이었으나 최근 中國 등으로 전환되고 있는 外國人 直接投資를 보다 활발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世界經濟成長의 軸인 ASEAN에의 가입을 통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으며, 정치 외교적으로도 국제무대로의 복귀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캄보디아, 內戰 勃發와 훈센側의 政局 主導

캄보디아의 훈센 제2총리가 라나리드(Norodom Ranariddh) 제1총리가 프랑스로 출발한 직후 FUNCINPEC(民族聯合戰線)계의 군사시설과 라나리드측 군고위장성 자택에 대한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캄보디아 내전이 발발하였다. 크메르 루주(Khmer Rouge)의 와해를 계기로 촉발된 캄보디아 內戰은 7월말 현재 알롱 벵(Anlong Veng)을 비롯한 북부 일부를 제외하고는 훈센 제2 총리측이 완전히 장악하였다. 정국을 주도한 훈센측은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반대파 검거 및 숙청작업을 병행해 나가고 있으며, 또한 라나리드를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 기소작업을 추진중이다. 반면, 북부 지방으로 쫓겨간 라나리드 진영

은 전력정비와 크메르 루주 잔존세력과의 연대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반격하고 있다. 추방된 라나리드 총리는 美國과 日本 및 UN 등을 방문하면서 훈센의 행동을 비난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同 內戰은 93년 9월 탄생한 기형적인 聯立政府가 내년 5월 예정된 總選을 앞두고 그 동안 세력다툼을 벌여 옴으로써, 또 크메르 루주라는 공동의 敵이 소멸됨에 따른 직접 대결로 인해 발생하였다. 특히, 96년 하반기 이후 와해되기 시작한 크메르 루주 이탈세력의 영입 및 처리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키우 삼판(Khieu Samphan)이 이끄는 잔존세력 약 2,000명이 라나리드 총리의 FUNCINPEC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또 키우 삼판의 남하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시아누크(Norodom Sihanouk) 국왕과 라나리드 총리가 출국한 시점에서 훈센 총리가 상대진영의 세력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촉발되었다.

ASEAN은 캄보디아에서 內戰이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 特別 外務長官會談을 개최하고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ASEAN의 이같은 결정은 캄보디아 內戰으로 인해 야기되는 東南亞의 地域不安과 정적들에 대한 훈센측의 비인도적인 처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훈센 총리는 ASEAN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內政干涉이라고 일축함과 동시에 캄보디아의 ASEAN 가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대응하였다. 국제사회의 여론도 훈센이 불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가하였다. 특히 美國을 비롯한 G-7과 러시아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며 외교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日本은 ODA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7월말 현재 캄보디아의 일부 국경지역을 제외하고 전역을 장악한 훈센은 ASEAN의 중재를 다시 받아들이겠다고 밝힘에 따라 ASEAN이 캄보디아사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재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Ung Huot 캄보디아 外務長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ASEAN 外務長官會談에 옵저버로서 참여하였고, 훈센 제2총리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및 泰國으로 구성된 ASEAN 特使와 내년 5월 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타협은 라나리드를 배제한 가운데 단독으로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훈센측의 의도와 캄보디아의 조기가입을 추진하는 ASEAN의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캄보디아 의회가 국외추방된 라나리드를 대신하여 Ung Huot 現外務長官을 제1총리로 선출할 예정이며, 북경에 머무르고 있는 시아누크 국왕 또한 훈센측과의 대화를 희망하고 있음에 따라 7월초 시작된 캄보디아의 내전은 훈센 체제로 일단락될 것이며, 내년 5월의 總選 및 ASEAN 加入問題 등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여론이 훈센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훈센은 UN 平和維持軍이 이루어놓은 평화를 짓밟고 내전을 일으켰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처해야 하는 것 등이 향후 캄보디아 政局運營의 중요한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親韓派인 훈센의 대세 장악으로 우리나라와의 관계 및 현지 진출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등은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나, 국지적인 내전의 장기화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화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등장할 것이며,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콩江 개발사업은 다소의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차트貨價值 急落으로 경제 혼란

최근 市場換率에 의한 차트(Kyat)貨의 급격한 하락으로 미얀마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5월말까지 美 달러에 대한 시장환율이 평균 160~165를 형성, 안정세를 보였던 차트화의 가치가 6월 30일에는 194까지 하락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90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수입제품 가격은 물론 생필품과 유류품의 물가는 최근 폭등하고 있으며, 현지진출 기업의 경우 수입중단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차트화의 급격한 價值切下는 외환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하에서 미얀마 정부가 7월의 ASEAN 가입을 앞두고 현지에서 발행되는 外換證書(FEC)와 차트貨 高額券을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실제로 미얀마 정부가 지난 6월이후 FEC를 대량 매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외부적으로는 인근 泰國의 바트貨 價值切下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미얀마 정부는 自國貨의 價值切下를 진정시키기 위해 부총리와 국가기획경제개발부 장관 등을 포함하는 外換委員會를 구성하여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일부 긴급품목의 수입을 제외하고는 대외수입을 제한하는 한편, 루머를 유포시킨 암시장 환전상을 구속하였으며, 중앙은행은 달러화의 대외송금을 월 5만 달러로 제한하였다.

미얀마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7월말 차트화의 가치는 달러당 235~245로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당분간의 시장환율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외환수급균형

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차트화의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泰國 Thammasat大學 경제학자인 Medhi Krongkaew 등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얀마는 현재 해외로부터의 대규모 金融支援(financial assistance)이 없는 한 자체적인 해결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미얀마는 96년말 현재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추구한 이래 최저치의 외환보유고를 보관하고 있다). 미얀마 정

부는 이에 따라 일본이나 미국과 같은 경제대국이나 ASEAN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으나, ASEAN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지원은 재정 및 금융관련 전문가를 同國에 파견하는 것에 국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同國의 차트貨價値 안정노력은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亞洲經濟室 鄭在完 專門研究員】

動 向

東南亞 動向

IMF・日本이 泰國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ASEAN 지역포럼이 개최되어 安保協議體로서의 위상을 확인했다

東南亞 國家의 通貨가 금융지원 및 각국정부의 대응으로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IMF・日本, 泰國에 금융지원

국제통화기금(IMF)과 日本 수출입은행은 泰國政府의 요청에 의해 약 80억달러규모의 자금을 협조융자형식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IMF와 日本政府는 同 자금이 그동안 泰國이 바트貨 가치하락 방어를 위해 소진한 외환보

유고의 보충 및 경제회생에 사용될 예정이며, 금융지원은 8월하순에 실시될 것이라 발표했다.

IMF의 對泰國 자금지원 배경은 泰國側에 제시한 금융・재정면에 관한 개혁조건(IMF Package)을 泰國政府가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IMF가 제시한 조건은 재정긴축